

쇼린안

쇼린안(松林庵)은 에도 시대(1603~1868년) 말기에 닌나지 절의 주지를 섬기며 수호의 임무를 맡았던 무사 집안이 살았던 가옥입니다. 1937년에 그 자손이 닌나지 절에 기증하여 현재의 장소에 정착되기까지 몇 번이나 이축되었습니다. 2층 건물로서 개축된 내부의 조성을 보면 채치가 담긴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다양한 크기의 방이 있고, 예술적인 장식과 낮은 문, 의표를 찌르는 각도가 설계되어 있는 등 흥미를 자아내는 건축적 고안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이러한 경향은 특히 2층에서 두드러지는데, 작은 전시실과 중앙의 계단 위에 놓인 작은 다리를 건너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다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건물의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는데, 1층 거실에서 장지를 열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정원에 면한 뒷마루에 앉아 경치를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. 이 정원은 2018년에 호화로운 숙박으로 오픈하기 위한 보수 공사의 일부로서 조성되었습니다. 쇼린안은 닌나지 절 프라이빗 투어의 일환으로서 1박 100만 엔에 최대 5명까지 숙박할 수 있습니다.